

# GS칼텍스, 임금동결 대열 합류

정유기업 줄줄이 임금동결 ... 임금교섭권 위임 위기극복 동참

GS칼텍스 노사가 S-Oil에 이어 2009년 임금을 동결하는데 합의했다.

GS칼텍스 노조는 4월28일 여수공장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교섭권을 사측에 위임해 2009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2005년부터 임금교섭권을 사측에 위임해왔으며 5년째 무교섭 임금타결을 이어오고 있다.

박주암 위원장은 “5년째 무교섭 타결은 그동안 쌓아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노조 전임자들은 임금의 5%를 반납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팀장 이상은 임금의 5-20%를 반납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9>